

“국립의전원법 법안소위 통과 환영” 남원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남원시, 지역 의료격차 해소·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 제도적 기반 마련

남원시가 지난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대 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전원법)이 통과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4년제 국립의대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국가 지원을 받은 졸업생이 15년간 공공보건으로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정원과는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며, 남원시의 공공의대 설립 준비는 2018년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이후 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제기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특히 지역의 아픔을 국가 공공의료 체계 강화의 계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

이 제기되며, 2018년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 설립 추진이 결정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복지부는 같은 해 남원의료원 인건 필지를 공공의대 설립 부지로의 확정은 사업 추진에 구체성을 더했으며, 이는 남원이 공공의대 설립의 최적지임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결정으로, 지역사회에는 큰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의료계와의 갈등, 사회적 논쟁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었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과정을 겪으며 사업은 다시 원점에서 논의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남원시는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지속해 오면서 공공의대 설립 예정 부지의 50%를 확보한 상태이며, 단계적 매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 용역 등 관련 행정 절차도 병행하여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고, 22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이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을 재발의함에 따라 병합 심사를 거쳐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라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남원시는 앞으로 남은 국회 본회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의대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남원시는 지난 8년간의 기대감과 준비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공공의대 설립을 원수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안전망 구축·이용 활성화

남원시가 ‘대한민국 대표 자전거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8명의 시민이 위로금과 입원비 등의 보험 혜택을 받았고, 올해에도 자전거 보험 제도를 지속 운영해 시민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 자전거 보험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 범위 내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만 15세 미만자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 위로금

20~6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사고 발생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남원시는 자전거 보험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자전거도로 확충과 정비 등 친환경 녹색 교통 기반 시설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교통과(063-620-6985) 또는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전거 보험 제도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 건강 증진과 안전망 구축 등 실질적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양충모 남원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양충모 남원시장 예비후보가 지난날 28일 오후 3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가 아니라,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살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도시로, 대규모 신규 개발 공약보다는 재정의 기초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기획재정부 1급 재정관리관과 새만금개발청 청장을 역임한 경험을 언급하며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루었지만, 이제 더 높이 가는 길이 아니라 시민 앞에서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 후보는 “사람이 있어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재정이 튼튼해지며, 시민 참여가 있어야 행정이 바로 선다”며 인구도시·경제도시·참여도시 전략을 제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정린 남원시장 예비후보, 만인의총 참배

이정린 전 전북특별자치도원이 지난날 27일 남원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직후 남원 만인의총을 찾아 참배하며 남원의 역사와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고 시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새로운 도전에 나섰으며, 전북에서 남원 뒤편 찾기를 핵심 과제로 예산과 제도 반영을 끌어내는 데 집중해 왔었다. 출마의 변으로 이정린 예비후보는 “남원은 인구 위기, 재정 부담, 행정 신뢰 하락이라는 삼중의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남원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린 예비후보는 앞으로 정책 발표와 시민 소통 일정을 순차적으로 이어가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KBS 전국노래자랑’ 임실치즈테마파크서 열린다

28일 재미원 광장서 개최... 17일까지 예심 현장 접수

임실군이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임실N장미축제를 전국에 알려 천민관광 명품도시 임실을 실현하기 위해 KBS 전국노래자랑 임실군편을 이달 28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군민이 주인공이 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실N장미축제(5.28.~5.31.)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방송을 통해 임실의 대표관광지와 축제를 전국 시청자에게 소개함으로써 관광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3월 3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읍·면사무소와 임실군청 홍보담당관(063-640-4932~4934)을 통해 현장접수로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임실군민과 관내 직장인, 학생 등으로 제한되며, 기성 가수는 제외된다.

예심은 3월 28일 오후 1시부터 임실군민회관에서 열리며, 1차 무반주 심사과 2차 반주 및 인터뷰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5팀을 최종 선발한다.



본선 녹화는 3월 28일 오후 2시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광장에서 개최된다.

사회자 남희석의 진행 아래, 미스트롯2 우승자 안성훈, 미스트롯2 우승자 양지은을 비롯해, 김성환, 황민우, 염유리 등 초대가수 5팀과 예심을 통한 15팀의 참가자들이 흥겨운 무대

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본선 녹화가 진행되는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광장은 해마다 봄이면 수만 송이의 장미가 만개해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군은 장미꽃이 활짝 피어나는 5월의 싱그러움 풍경을 앞두고, 이번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장미원의 수려한 경관을 미리 선보임으로써 향후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3,000여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사전 경호 인력을 포함해 경찰, 소방, 공무원 등 운영, 교통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구급차와 의료지원반을 상시 운영해 현장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심민균수는 “이번 방송을 통해 임실의 아름다운 장미축제와 관광자원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천민관광 명품도시 임실’로 도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끼와 열정이 넘치는 임실군민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치며 큰 즐거움을 나누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실=진총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대학 신입생 '진학 축하금' 지원

순창군이 새 학기를 맞아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인당 200만원의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순창군육친장학회를 통해 추진된다.

군이 장학회에 사업비를 출연해 시행하는 교육지원 정책으로, 대학 입학 초기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이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본인과 보호자가 모두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다.

특히 최근 조례 개정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뒤 특성학교 등 관외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입학한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기준은 202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 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임실군은 올해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오는 1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접종은 구제역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임실군 전 지역을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소 구제역 일제접종 대상 농가는 582호 2만 870두로 지정했다. 접종 방법은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예방접종요원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농가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하도록 한다.

다만,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하지 않은 개체 △임신 말기로 농가에서 유예를 신청한 개체 △2개월 미만 개체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실군은 올해 50두 이상 100두 미만 전업농가에 소 구제역 백신을 지원한다.

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대상농가는 162호 1만 501두로이며, 임실군에서 위축한 공수의사와 보정반을 동원해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실=진총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